



기획시리즈

김 장 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베르사이유 궁원(프랑스), 헤렌하우젠 궁원(독일) 探訪記



▲ 베르사이유 궁정

루이 14세에 건립한 세계에서 가장 관절(冠絕)한 베르사이유 궁원은 프랑스식 정원의 원조이

며 또한 독일의 헤렌하우젠 궁원은 프랑스식 정원을 모방한 대표적 정원이므로 이를 설명하여 유

럽의 궁원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베르사이유 宮苑

루이 14세는 르 노트르를 기용하여 居城인 베르사이유궁에 부속되는 정원을 축조하였다.

베르사이유는 처음에는 사냥하기에 알맞은 초택지로 사냥을 좋아했던 루이 13세가 1624년 이곳에 간소한 수렵사를 지어 놓으면서 비롯되었다. 수렵사는 벽돌로 지어진 대단히 간소한 것이었으나 중정(中庭)의 네 구석에는 원정(園亭)이 세워져 있고 주위에는 넓은 둑(堤)을 쌓아 놓아 아름다운 外觀을 갖추고 있었다. 그 정원은 보와소(Boyceau)가 설계한 것으로서 순수한 16세기 말의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루이 14세는 12세 때 처음으로 그곳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이 간소하고 아름다운 성이 마음에 들어 왕위에 오른 다음 부왕이 지어 놓은 수렵사의 주위에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건물을 증축해 갔다. 오늘날 우리 가 보는 웅장하고도 화려한 궁전은 노트르가 계획하기에 앞서 착수되었다고 하며 노르트는 이미 대궁전의 건립을 예상하여 그 정원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궁원에서 가장 일찍 만들어진 부분은 1664년 남쪽 화단 밑에 자리잡은 과수원이다. 처음에는 면적도 현재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직접 수렵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최초로 궁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 화단이 그대로의 생김새로 남겨졌으나 궁전이 확장되었을 때 이 자리를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거대한 인조노

단(人造露壇)으로 개조해 놓았다. 이 노단은 “물의 화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노트르는 이곳에 물을 가지고 화단과 동일한 효과를 조성해 놓고자 한 듯하다. 그의 설계도에 의하면 여러가지 색채를 가진 물의 흐름으로 화단과 같은 무늬를 그려 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대신 이 자리에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거대한 연못을 만들어 백색의 궁전건물이 그 넓은 수면에 비치도록 해놓았으며 물가에는 우아한 청동제 조상(影像)이 배치되어 있다. 이 노단의 정면 아래 쪽에 반원형을 이룬 비탈길이 있고 그 정면 중앙에 좌우로 화단을 걸들인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연못으로부터 주축의 중앙원로인 ‘왕자의 가로수길’로 향해 뻗어나가는 이 원로는 ‘아폴로의 연못’에서 끝난다.

베르사이유 궁원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주축에 따라 추고해 놓은 「大커넬」이다. 이것은 정원을 넓게 보이게 하는 한편 저습지 연못의 배수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1.6km의 길이에 두 개의 지류를 나누어 十字形을 이루게 해 놓았다. 커넬의 남단부는 야수원(野獸園)에서 끝난다.

‘물의 화단’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1669년경 개조된 곳으로서 물을 교묘하게 취급한 국부가 있으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즉 ‘피라밋의 噴泉’을 비롯하여 ‘물의

園路’ ‘님프의 연못’ ‘용의 연못’ ‘넵튠의 연못’ 등이 이것이다. ‘물의園路’는 잔디園路의 양쪽에 14개의 작은 噴泉이 줄을 잇고 있다. ‘님프의 연못’은 다이아나가 님프와 즐기는 구상에 의해 만들 어져 있다. ‘용의 연못’ 북쪽에 ‘넵튠의 연못’이 자리잡고 있으며 연못 주위에 놓인 많은 화병 속으로부터 물이 높이 솟아오른다.

커넬支流의 북단은 『대트리아농(Grand Trianon)』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과거 이곳에는 루이 14세가 몽테스팡(Montespan)부인을 위해 건조한 ‘트리아농宮(陶磁器宮)’이 있었다. ‘트리아농宮’은 진기한 중국식 건물로서 그것은 루이 14세의 공상적인 기분과 동양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정원에는 건물을 구성하는 청색과 백색 도자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다채롭고 진기한 화훼가 다양하게 심어졌으며 그 강렬한 향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루이 14세의 빛나는 역사가 끝나고 摄政時代가 되면서 베르사이유궁은 크게 황폐되어 버렸으나 1749년에 이르러 풍파도르(Pompadour)부인의 손에 의해 부흥되어 다시 全盛時代의 경관이 되살아났다. 베르사이유 궁원의 완성을 보면서 그 양식을 프랑스식 또는 르 노트르식이라고 불리우는 평면기하학식인 정원양식이 확립되는 한편, 노트르의 조경가로서의 기반도 완전히 굳혀졌다.



▲ 라토나의 분수. 베르사이유



▲ 베르사이유 궁전 전경

으며 그의 긴 생애를 통해 프랑스 국내는 물론 이웃의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겨 놓았다. 그가 남겨 놓은 작품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원은 대체로 3개 지역으로

갈라져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는데 반하여 르 노트르의 작품은 거의 모두가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마치 일대 정원지구를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헤렌하우젠 宮苑, 하노바

루이 14세의 궁정생활은 독일 왕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베르사이유 궁원은 동경하는 '파라다이스'가 되었다. 많은 王候들이 베르사이유를 지표로 하여 조원하였으며 프랑스식 정원은 짧은 기간에 독일 전국토에 파급되어 처음에 시작한 것이 헤렌하우젠 궁원이다.

하노바 시가지에서 2km에 이르면 아름다운 보리수나무 가로수길 서쪽에 헤렌하우젠이 있고 거기에서는 4개의 정원을 볼 수 있다. 구로사정원, 벨크정원, 계올 젠정원 및 벨휘정원이다. 각기 내용이 틀린 정원이지만 대표적인 것은 1986년 이후 시 관리하에 있는 구로사정원이며 헤렌하우젠 정원이라하면 구로사정원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여간 프랑스 정원이 독일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조경사상 중요한 뜻을 가지며 이는 헤렌하우젠의 구로사정원이 있으며 오늘날 옛 정경을 볼 수 있다.

創建者는 요산 · 후리드릿 大公이다. 궁원이 확장된 것은 1668~1706년이며 大公의 사후 계속하여 정원에 힘을 기울여 王妃 소피 즉 영국王으로 등위한 죄지1세의 생모가 오늘날과 같은 프랑스정원을 축조한 것이다. '헤렌하우젠 궁원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소피는 친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몇번



▶ 헤렌하우젠 성관과 정원

이나 썼다고 한다.

矩形으로 되어있는 궁원면적은 주위를 둘러싼 커넬과 바깥쪽에 설치된 둑(堤)을 포함하여 약 60ha이다. 東西南쪽에는 폭 26m를 넘는 커넬이 궁원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北쪽에서는 주랑(柱廊) 건축과 온실이 경계를 이룬다. 주위를 커넬로 둘린 것은 오란다의 영향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궁원이 전체적·형식적으로 프랑스식 정원인 것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때로는 프랑스·오란다식 정원으로 볼 수도 있다.

둑 안쪽에는 세줄의 보리수나무가 식재되고 폭은 27m가 넘으며 苑路의 안쪽에는 높은 생울타리로 식재되어 있다. 본 궁원은 평지이므로 편단원이 된 것은 자연적이며 또 프랑스식 정원으로서 계획하므로 엄밀한 좌우대칭(左右對稱)으로 지할(地割)된 것

은 당연하다. 城前에서 남쪽으로 뻗은 주축선(主軸線)은 円形의 광장으로 끝이 된다. 이를 축선으로 하여 크기에 따라서 면적을 나누어 오랜지온실에는 野菜園이 배치되었다. 단지 야외극장만은 좌우대칭이 아니고 동측에 설치되고 있다. 이 정도의 비대칭은 파리궁원에서도 볼 수 있으며 엄격한 좌우대칭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관(城館)에서 北西의 원로(苑路)를 걸으면 小噴水를 볼 수 있다. 같은 분수는 전체적으로 4개 배치되고 이와같은 분수의 팔각형 광장을 중심으로 원로가 팔방으로 나누어진다. 원로의 양쪽은 회양목을 식재하고 내부에 만 들어진 花卉類에 의해 장식되었다. 주축선 도중에는 대천수(大泉水)를 만들었다. 수반(水盤) 직경은 53m이며 噴水를 내는데 린마

춘 가까이에 특설한 커넬에서 管으로 물을 뽑는다. 직경 30cm의 큰 파이프를 통하여 80m나 치솟는 물의 높이는 壯觀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네河川에 제방을 만들어 수면을 3.25m 높이고 커넬에서 궁원에 물을 끌고 분수의 남은 물을 라이네河川에 돌리는 계획안이다. 이와같은 계획으로 궁원에는 35m의 분수로 높일 수 있었다. 1856년에는 기계의 성능 향상과 철관을 연관으로 대치함으로 분수높이를 67m까지 높였다.

큰 분수와 城을 결부한 主軸線에는 보리수나무의 가로수가 식재되고 보리수나무의 보스케도 만들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4개의 矩形池가 보인다. ‘白鳥연못’이라고도 호명하며 모든 연못에는 白鳥를 방사하고 있으며 白鳥를 위



◀ 대화단(大花壇)

▼보리수나무 가로수길

한 집도 南側에 마련하였다.

다음에는 城의 南東方에 구획된 野外劇場을 볼 수 있다. 野外劇場의 양쪽에는 금박을 한 많은 연제(鉛製)조각이 나열되며 회양목을 배식하는 동시에 조각 배후에는 정연히 다듬어진 보리수나무의 높은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野外劇場은 남쪽에 갈수록 제형(梯形)으로 만들어지고 劇場의 全長이 58m, 幅은 넓은 것은 64m이다.

白鳥연못 북쪽에는 8구획되어 있는 호화찬란한 아름다운 화단을 볼 수 있다. 1697년 확장공사 할 때 모양을 바꾸어 균정된 화단을 만들었고 현재 시의 충분한 관리 하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고 있다. 8구획 구석에 32基의 男女神像을 배치하였고 大花壇은 특이하며 八方으로 방사하는 鐘形분수도 볼 만한 것이다.



또 남쪽 主軸線上에는 앞에 설 명한 大噴水를 볼 수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헤렌하우젠의 구로사정원은 부분적으로 변천하였지만 프랑스식 정원의 특색을 잘 보전하여 지키고 있었다. 많은 기하학정원의 일부가 풍경식으로 바꾸어졌지만 독일에 있

어서 第一號의 프랑스식 정원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조경계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본 궁원은 1937년 하노바-市公園課에서 근본적으로 改造하여 都市公園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는 옛 王朝時代의 궁원으로서의 면모는 볼 수 없다.